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3/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쉬운 언어로 다시 읽는 '성철선' 핵심 해설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지음/벽해 원택 감수

장경각 펴냄/4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강경구 교수

선문정로 19장 체제를 그대로
각 장마다 맥락과 특징을 짚어
한문투 번역문 이해 쉽게 풀어



감수한 원택 스님

해인총림 방장 성철 큰스님께서는 1981년 1월에 대한불교조계종 6대 종정에 추대되셨다. 그리고 그 해 12월 1일에 〈선문정로(禪門正路)〉를, 그 다음해인 1982년 7월에는 '본지풍광(本地風光)'이 〈산이 물 위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성철 큰스님께서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했다"며 흔연해 하신 책들이다. '밥값'이란 단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특히 〈선문정로〉는 화두 참구 수행자들에게는 교과서 역할을 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내용 자체가 난해한데다, 한문투가 많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다가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깨달음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 없음)'를 강조하는데 이는 보조국사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은 지속돼야한다)' 사상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문정로〉 내용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천조이자 송광사 16국사 문중의 초조인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를 비판하면서, 선종의 정통은 '돈오돈수'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어 전통적인 한국 불교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형국이 되었다. 750여 년 동안 한국 선불교의 전통으로 추앙받은 보조국사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져 보조 국사를 숭모하는 이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종문(宗門)은 물론 불교학계에서는 〈선문정로〉서 제기한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보조국사의 사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종정이 되어 보조국사를 힐난한다고 큰스님을 비난하고 나서니, 상좌인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라고.

이런 일진광풍의 논란속에서 그 중심에 있던 〈선문정로〉도 세인의 관심에서 차츰 밀려났다.

세월이 흘러 올해로 출간 41주년을 맞은 〈선문정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동의대 중국어학과 강경구 교수가 성철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안내한 〈정독(精讀) 선문정로〉를 펴냈다.

저자는 선문정로 19장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각 장마다 맥락과 특징을 짚고, 인용문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또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투의 번역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다. 사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한국의 수행풍토가 선문의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반성에서 시발된 일종의 법문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간화선 선사였던 성철 스님은 '순수한' 간화선의 수행 전통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집필한 것이다. 저자인 강경구 교수는 이 책의 해설서를 쓰기로 마음먹고, '성철스님 따라하기'와 '성철스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천하였다. 〈선문정로〉의 한 문장에서, 쉼표 하나와 마침표 하나에서, 혹은 저 넓디넓은 행간 속에서 스스로 성철 스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되돌아보며 '왜?' '어째서?' '이 뭣고?'와 같은 시공을 끊어낸 질문과 긴 씨름을 했다. 그 결과 '돈오원각론(頓悟圓覺論)' '실참실오론(實參實悟論)' '구경무심론(究竟無心論)'으로 '성철선'의 3대 종지를 정립하고, 마침내 10여 년에 걸친 〈선문정로〉 읽기를 마무리한 결과물로 이번에 〈정독 선문정로〉를 펴내게 된 것이다. 〈선문정로〉의 특징은 '인용문 분석'으로, 성철 스님의 인용문은 별색으로, 글자의 생략과 바뀜, 대체 등은 대괄호 [ ]와 동그라미 숫자를 이용해 검정색으로 구분 표시한 것이다. 이어서 〈선문정로〉 번역문과 저자의 현대어역을 실었다.

저자의 현대어역은 한문에 능수능란했던 성철 스님의 한문투의 번역문을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했다. 또한 글자의 생략이나 바뀜 등은 [ ]를 이용하되 문맥과 뜻이 통하도록 했다.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해설]에서는 인용문의 출전을 밝히고, 성철스님께서 간절하게 돈오돈수를 주장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인용문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성철 스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폈다.

저자인 강경구 교수는 책머리말에서 "알고 이해하는 일 자체가 깨달음의 장애가 됨을 알면서도 다시 그 앎과 이해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적 담론의 운명"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성철선에 대해 말하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실상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적 간극을 거듭 확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실로 알고자 하는 간절함의 순도가 높아지므로 이 책이 성철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성철선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이 책이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찾거나 나의 수행을 점검하고 싶은 분들이 정독 하시길 권해드린다"며 "성철 스님이 남긴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이 시대에 메시지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니 우리가 참선 수행하면서 위기나 게으름에 빠지거나 자기 관점서 왜곡이 일어날 때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됐고 또 그렇게 확인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감수를 맡은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도 추천사를 통해 "단순히 학자적 호기심과 연구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다. 오로지 성철 스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는 굳건한 신심과 저자 자신의 실경계 체험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글이었다"며 "성철 스님에 대한 비판이나 긍정 등의 발언은 뒤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용문을 점검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선문과 수행자의 입장에서 짚어나가는 성실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고 격려했다.

▲저자 **강경구 교수**는?

동의대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대한중국학회 회장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불교방송에서 '서유기와 불교'를 주제로 라디오 강연을 했으며, 국제신문 종교칼럼(불교)을 집필했다. 저서로는 〈두 선사와 함께 읽은 신심명〉 〈평설 육조단경〉 외 23권이 있고, 논문으로는 〈서유기 화과산의 불교적 독해〉 〈선문정로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1,2,3,4)〉 등 70여 편이 있다.

▲감수 **원택 스님**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1월 15일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백련암을 떠나지 않고 22년 동안 큰스님을 시봉하였고, 성철스님 열반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철스님기념사업과 불교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받았다. 현재 해인사 백련암, 산청 겁외사, 부산 고심정사 회주이며, 저서로는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성철스님 임제록 평석〉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성철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이 옛 불조들과 다르지 않음을 확신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문장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현대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의 왜곡에 속하지만 옛 한자문화권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다. (중략) 흔히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핵심이 창작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술(述)'은 옛 사람의 말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심화된 재해석과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성철스님의 문헌 인용은 그런 점에서 술이부작의 전통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제 8장 오매일여〉中에서

"성철스님은 교와 선, 해오와 증오, 돈오와 점수와 같은 모순된 둘을 함께 인정하는 통합론을 거부한다. 그 대신 간화선이라는 용광로에 불교의 모든 수증론을 녹여내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수증론을 논의의 장에 올리되 그 논의의 끝은 항상 활구참구의 실참을 통한 실오로서의 견성, 즉 구경원각에 대한 강조가 되는 것이다. 실참실오를 주장하는 성철선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15장 다문지해〉中에서

"〈선문정로〉는 그 설법이 부정과 비판과 배격의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의 방식으로 전개된 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조스님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강력한 부정과 비판과 배격은 예외 없이 수행자의 내면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향한 것이다. 〈선문정로〉에 정통성의 측면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핵심은 선 수행의 실천을 인도하는 안내서로써의 역할을 지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실천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